

세계 랭킹 1위 태권도 선수들 한자리에 진안홍삼, 이탈리아 진출 박차

'무주 태권도원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28~31일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무주군(군수 황인홍),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나흘 간, '무주 태권도원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이하 그랑프리 챌린지)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그랑프리 챌린지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 박태준(남 -58kg, 대한민국)과 피라스 카투시(남 -80kg, 튀니지), 김유진(여 -57kg, 대한민국), 엘시아 리우린(여 +67kg, 프랑스) 등 4명은 현재 체급별 세계 랭킹 1위이다. 박태준 선수는 30일, 김유진 선수는 31일 경기에 나선다.



무주 태권도원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포스터

이들 외에도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과 동메달, 도쿄올림픽 금메달 수상자를 포함한 351명의 선수와 183명의 임원 등 534명이 참가한다. 25일 현재, 대회 참가를 위해 개최국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미국, 스페인, 영국, 태국 등 36개국 선수단이 도착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랑프리 챌린지 입상자들은 삼급과 G-2 등급의 올림픽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고 체급별 1, 2, 3위 입상자는 내년 9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G-6 등급의 '무주 태권도원 2026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권을 획득하게 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그랑프리 챌린지가 참가를 위해 태권도원을 찾은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지역 관광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무주읍과 설천면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전북투

발차기도 야행 명소 10선'에 선정된 '무주 남대천 별빛 다리' 등 관광 명소와 무주읍, 설천면 일대 식당을 방문하는 등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그랑프리 챌린지를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태권스테이 올인원 투어 패스 상품을 출시했다. 올인원 투어 패스 상품은 '네이버 스토어'와 '노는법'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데 대회 관람은 물론 태권도원 내 '모노레일'과 '체험관 YAP' 이용권, '음료 쿠폰' 등을 1만 원에 구입해 즐길 수 있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그랑프리 챌린지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라며 "경기 외적으로도 태권도원을 찾은 세계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한식을 맛보고 관광을 즐기는 등 국제 태권도 대회가 지역 경제와 관광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등 공공기관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12월 파르마 지역 K-Shop 매장 내 홍보관 설치·입점 추진

진안홍삼이 유럽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안군친환경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이탈리아 파르마 지역 K-Shop 매장 내 홍보관 설치와 브랜드 입점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이탈리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업단은 CmoASIA 현지법인(강광배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과 이탈리아 파르마 지역에 12월 초 확정된 K-Shop 오프라인 매장 오픈을 앞두고 진안홍삼 홍보관 설치와 진안홍삼 브랜드 입점 목표로 협의를 완료했으며 수출 품목 설정 및 수출액 산정, 브랜드 마케팅 등 실무적인 사항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수출 협의는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비즈니스대회에서 전춘성 군수와 사업단 관계자들이(쑤산소촌(대표 강광배 교수)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은 진안홍삼 수출 방안 업무 추진의 연장선으로 지난 8월 19일~20일 비타칸 수도원 올베르토 나르디 박사의 진안군 방문과 함께 유럽



지역 진출에 대한 세부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탈리아는 유럽 2위 제조업 강국이자 4대 소비시장이 형성된 국가로, 최근 현지에 한류 확산에 따른 K-상품 진출 기회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령화 및 만성질환 등 관심이 높아 홍삼의 효능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진안홍삼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의 명품 홍삼이 이탈리아를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 명성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세계로 진출을 통해 진안 관내 인·홍삼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수출을 통한 매출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41회 무주군민의회장 수상자 발표

문화체육장·공익장·효행장·애향장 4개 부문 선정



문화체육장 이정숙 공익장 이강우 효행장 이재현 애향장 김병구

무주군이 25일 제41회 군민의회장 수상자를 발표했다. '무주군민의회'는 무주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무주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매년 무주군민의회장 심사위원회를 통해 문화체육장, 산업근로장, 공익장, 효행장, 환경장, 애향장 등 6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후보자 17명 중 '산업근로장'과 '환경장'을 제외한 4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결정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문화체육장'에는 이정숙 씨(53세, 무주읍), '공익장'에는 이강우 씨(74세, 무주읍), '효행장'에는 이재현 씨(67세, 무풍면) '애향장'에는 재경무주군민회 김병구 씨(71세, 안양시)가 선정됐다.

제41회 무주군민의회장 시상식은 오는 9월 14일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폐막식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장'은 교육·문화·예술·언론 등 향토 문화와 예술 발전, 체육 발전에 공헌했거나 군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정숙 씨는 무주군 생

활문화예술동호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익장'의 주인공이 된 이강우 씨는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서 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토대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공공사업, 사회사업, 기타 봉사활동과 지역사회의 개발 및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효행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사랑 실천으로 모범이 되는 군민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재현 씨는 차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정성으로 봉양하며 마을 발전과 이웃들의 복리 증진에 힘쓰는 등 마을 이장으로서도 귀감이 되고 있다.

재경무주군민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는 김병구 씨는 고항이 안성면으로 그동안 향우회 화합과 무주발전을 도모하며 고향사랑기부와 장학금 기탁 등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에 기여해 '애향장'의 주인공이 됐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민의회장은 무주군민이 인정하고 수여하는 상이라 의미가 깊다"며 "올해도 각 분야에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많은 분이 추천해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벼 병해충 공동방제로 총력 대응

전춘성 진안군수는 25일 고온기에 확산 우려가 커지는 벼 병해충 차단을 위해 조생종 벼 재배지를 중심으로 진행된 3차 공동방제 현장을 직접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해 벼멸구 확산으로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관내 벼 재배농지에 또다시 흰등멸구, 애멸구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흰등멸구와 애멸구는 벼멸구처럼 강한 해충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밀도가 높아질 경우 수량 감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조기 방제가 필수적이다.

올해 공동방제는 지난해보다 한 차례 증가한 총 3회 일정으로 추진됐다. 1차 방제에서는 1,085ha, 2차에서는



1,178ha에 대해 방제를 완료했으며, 이번 마지막 3차 방제에서는 1,104ha에 방제에 집중 방제가 실시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과 지역농협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방제비의 50%를 군에서, 20%를 지역농협에서 부담하는 등 전체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자매도시 합천군에 수해복구 성금 900만원 전달

장수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매도시 합천군의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9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12일부터 18일까지 장수군 소속 분청 및 읍·면, 군의회 직원 682명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된 것으로 합천군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돕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성금은 합천군청에 전해져 피해가 심각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수군과 합천군은 1999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성금 전달로 두 지자체 간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학교급식 로컬푸드 가공품 공급업체 선정 나서

무주군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로컬푸드 가공품 공급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한 안전한 가공품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뒷받침하고, 도내 농축산물 제품의 판로를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 지역 내에 소재한 가공품 제조업체 및 농가 중 도내 생산 농축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한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원료 생산 정보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 및 푸드플랫폼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장수기쁨 축제 복지마당 운영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은 최근, 계북초등학교 및 참샘골체육관 일대에서 진행된 제3회 장수기쁨 토마토탕 수박축제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마당'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복지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마당'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주민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따뜻한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현장에는 복지관 직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르신 당사자들이 자원봉사자의 역할로 함께하여, 더욱 따뜻한 지역사회 활동이 되었다.

운영 내용으로는 장애인식개선 체험, ESG 가치확산 프로젝트 체험 부스, 에코백 만들기 체험, 신진 인화 체험 부스를 구성하였으며, 에코백 체험은 '달라서 빛나는 우리'라는 메시지와 장애인 당사자를 형상화한 그림을 직접 페브릭 마커로 채색함으로써, 주민들이 장애와 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